

우리는행 31일까지 '우리가족 걸음 기부 캠페인'

우리는행이 31일까지 '우리가족 걸음 기부 캠페인'을 실시한다. 모바일 앱 빅워크 설치 후 임직원들의 3월 걸음 수를 측정한다. 한 걸음마다 1원씩 적립하며 기부 적립 목표인 1억 걸음 달성 시 1억 원을 환경 단체에 기부한다. 자발적 참여 독려를 위한 걷기왕 이벤트도 진행한다.



SK그룹-현대차그룹, 수소 생태계 확장 공감

최태원·정의선, '수소동맹' 맺었다

(SK그룹)

(현대차그룹)

SK사업장 내 수소전기차 1500여대 공급 수소 및 초고속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포스코와 '한국판 수소위원회' 설립 추진 인천시 수소 사업기반 구축 업무협약 체결



현대차그룹과 SK그룹은 2일 SK인천석유화학(인천광역시 서구 소재)에서 수소 생태계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 후 인천광역시, 인천서구청과 인천광역시 수소 사업 기반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 재현 인천서구청장, 박남춘 인천광역시시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정세균 국무총리, 최태원 SK그룹 회장, 공영운 현대차 사장, 추형욱 SK E&S 사장(왼쪽부터), 사진제공 | 현대차그룹

현대차그룹이 SK그룹과 수소 관련 사업 분야에서 다각적인 협력을 추진하며 수소 생태계 확장에 나선다.

현대차그룹과 SK그룹은 2일 SK인천석유화학(인천광역시 서구 소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3차 수소경제위원회 참석에 앞서 양 그룹 주요 경영진들이 면담하고 수소 생태계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대차그룹 측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비롯해 공영운 현대차 사장, 장재훈 현대차 사장, 조성환 현대모비스 사장, 김세훈 현대차 부사장 등이 참석했으며, SK그룹 측에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장동현 SK(주) 사장, 추형욱 SK E&S 사장, 최윤석 SK인천석유화학 사장 등이 참석했다.

●현대차-SK-포스코, 한국판 수소위원회 설립 추진

현대차그룹과 SK그룹은 수소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에 나선다. 우선 SK그룹 사업장에서 운영 중인 차량 1500여 대를 현대차가 생산한 수소전기차로 점진적 전환한다. 수소카고 트럭(2022년 예정)과 수소트랙터(2024년 예정) 등 수소상용차를 현대차그룹이 제공하고 SK그룹이 활용하는 방안 등을 협의했다.

수소 및 초고속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에도 힘을 모은다. 올해 말까지 인천, 울산 지역의 물류 서비스

거점인 SK내 트럭하우스에 상용차용 수소충전소를 각 1기씩 설치하며, 전국의 SK 주유소 등에 수소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도 지속 협의할 계획이다.

또한 양 그룹은 포스코그룹과 함께 국내 기업간 수소 사업 협력을 위한 CEO 협의체인 '한국판 수소위원회(K-Hydrogen Council)' 설립도 상반기 중 추진키로 했다. 한국판 수소위원회는 국내 기업들의 수소 사업 역량 강화 및 사업 영역 확대 등을 통해 진정한 수소사회 구현을 견인하기 위한 다양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차그룹은 SK그룹과의 이번 수소 사업 협력을 통해 친환경 분야 사업 역량을 더욱 강화하며 탈탄소 시대를 열어간다는 방침이다.

SK그룹도 지난해 12월 차세대 에너지로 수소 사업을 집중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수소사업추진단'을 출

범하고, 국내 수소 사업 추진 및 글로벌 시장 진출 등을 통해 수소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수소는 에너지원일 뿐만 아니라 에너지의 저장체로도 활용할 수 있어 탄소 중립 시대의 '에너지 화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SK그룹과의 협력을 통해 수소의 생산, 유통, 활용이 유기적으로 이뤄지는 건전한 수소 생태계를 구축하고,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을 통한 수소 사회의 실현을 한 발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그룹과 SK그룹은 간담회 후 인천광역시, 인천서구청과 인천광역시 수소 사업 기반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당사자들은 인천 지역 내 수소와 관련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등 수소경제 확대를 위해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원형모 기자 sereno@donga.com

“광명·시흥 신도시 발표전 토지매입” LH 임직원 10여 명, ‘땅 투기’ 의혹

참여연대, 처벌 촉구...LH “관련자 직무 배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2일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10여 명이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로 지정된 경기 광명·시흥지구에 100억 원대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광명·시흥지구는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1271만㎡, 384만평)로 지정된 곳으로 향후 7만 가구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사법적 제재가 가능한 범죄 행위라고 볼 수 있다. 공공기관 직원들이 자신의 위상을 이용한 내부 정보를 사적으로 부적절하게 활용했다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발바탕에 깔려있다는 점에서 거센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정부의 개발계획 발표 직후 해당 지역에서 LH 임직원 14명이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했다는 제보를 접수했고, 이들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 근무한 사람들로 알려졌다. 민생경제위원장인 김대년 변호사는 “해당 필지의 토지 등등기부등본과 LH 직원 명단을 대조한 결과, LH 직원 10여 명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10개 필지의 토지(2만3028㎡, 약 7000평) 지분을 나누어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해당 토지 매입가격만 100억 원대에 이르며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추정액은 약 58억 원인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명위원인 이강훈 변호사는 “이번 조사를 하면서 공공주택사업에 대해 누구보다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LH 임직원들이 신도시 예정지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토지 투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LH 공사 직원들의 이런 행위는 부패방지법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업무상 비밀유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공공기관 직원들이 3기 신도시 내에서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 사전투기 의혹의 사실관계 및 파악한 정황과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해 LH 홍보실 관계자는 “의혹이 제기된 직후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며 “사실 관계 확인에 따라 일단 관련자 12명은 직무 배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흙을 밟는 도시아이들 “농촌으로 유학가요”

서울·전남교육청서 추진...유학비 지원 최대 1년까지 농촌에서 학교생활 가능 생태친화적 교육환경에 관심 뜨거워



2월 26일 농촌유학생 환영식을 맞아 순천이화서당을 방문한 정석웅 전남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서울교육청 교육감(가운데 왼쪽부터)이 학생, 학부모,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서울교육청

“삶은 옥수수 먹고 물고기 잡으러 가요!” 도시아이들의 행복한 농촌 학기가 2일 시작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과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은 지난해 12월 7일 업무협약을 맺고 서울 초·중학생들의 농촌유학을 추진해 왔다. 학생들에게 생태친화적인 교육환경과 프로그램을 높이에 맞춰 제공해 생애의 가치를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흙을 밟는 도시아이들, 농촌유학’이 테마다.

대도시의 답답함과 툇나버려처럼 짜인 학습 환경으로부터의 휴가분한 탈출.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나 맑은 공기를 마시며 자연-마을-학교 안에서 계절의 변화, 제철 먹거리, 관계 맺기를 체험할 수 있는 농촌 유학에 학생, 학부모의 뜨거운 관심과 신

청이 쏟아졌다. 2일 개학을 맞은 농촌유학생은 총 82명. 이중 초등학생은 66명, 중학생은 16명이다. 이들은 전라남도 소재의 초등학교 13교, 중학교 7교, 총 10개 지역에서 유학 생활을 시작한다. 참가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순천(26명)이며 영암(12명), 강진(9명), 화순(9명) 순이다.

서울시교육청이 농촌유학 참가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학부모들이 자녀의 농촌유학을 결정하게 된 이유를 알 수 있다. 학부모들은 ‘자연 속에서 맘껏 뛰어놀게 하려고(27.08%)’, ‘자연의 변화를 느끼며 생태 감수성을 갖게 하려고(22.92%)’, ‘농촌문화, 마을공동체 등을 체험하고 싶어서(18.75%)’ 등을 꼽았다.

농촌 거주 경험이 없는 부모가 절반에 가까운 45.94%(17명)나 된다는 것도 흥미롭다.

학생들의 유학기간은 6개월이지만 1회 연장이 가능해 최대 1년까지 농촌에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다. 홈스테이형, 지역센터형, 가족체류형 중 선택하면 된다. 홈스테이형은 ‘제2의 부모’인 농가부모와 농가에서, 지역센터형은 보호자 역할이 가능한 활동가가 있는 지역센터에서 생활한다. 가족체류형은 아예 가족이 단기 이주해 생활하는 유형이다. 세 유형 모두 양쪽 교육청에서 유학비를 지원해준다. 예를 들어 홈스테이형과 지역센터형의 유학비는 월 80만 원이지만 교육청에서 각각 30만 원씩을 지원해 학부모는 월 20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순천 낙안초등학교로 간 강성원(6학년)군의 어머니 고은혜 씨는 “작년 코로나로 학교도 못 가고 밖에 나가 뛰어놀지도 못하는 아이를 보며 안타까워하던 중 교육청의 통신문을 보고 ‘여기다’ 싶어 신청했다”며 “아이가 너무 좋아한다. 농촌유학을 통해 아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키우고 편식습관도 고쳤으면 좋겠다”고 했다.

원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삼성물산, 1.8조 규모 카타르 LNG 공사 수주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2일, “총 1조8500억 원 규모의 카타르 액화천연가스(LNG) 수송기지 건설공사를 단독으로 수주(사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카타르 국영 석유회사(Qatar Petroleum)가 발주한 것으로, LNG 수출을 위한 저장탱크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삼성물산은 단독으로 EPC(설계·조달·시공)를 수행하고 18만 7000㎡의 LNG 저장탱크 3기와 항만접안시설 3개소, 운송배관 등을 시공한다. 공사금액은 16억7000만 달러(1조8500억 원) 규모. 총 공사기간은 57개월로 오는 2025년 11월 준공 예정이다.

SPC그룹, 2021년도 정기 임원인사 단행



SPC그룹이 2일 2021년도 그룹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황재복(사진) 파리크라상 대표이사를 사장으로 승진 발령하고, 이명욱 파리크라상 파리바게뜨BU장(부사장)을 파리크라상의 대표이사로 발령해 각자 대표체제를 구축했다. 황 사장은 그룹의 지주회사인 파리크라상의 인사와 총무 등 관리 업무를, 이 부사장은 마케팅과 영업 등 사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배스킨라빈스와 던킨도너츠를 운영하는 비알코리아 수장으로 도세호 비알코리아 부사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기존 김창대 비알코리아 대표이사는 포장재 사업을 담당하는 SPCPACK 대표이사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박해만 SPC삼립 전무, 이경일 비알코리아 전무, 김병성·박원호 SPC 전무 등이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정정욱 기자

편집 | 신하늘 기자 mythuki@donga.com

“쿠팡 최대 4조원 자금조달...기업가치 57조원”

미국 증시 입성을 앞둔 쿠팡이 공모 희망가로 최고 30달러를 제시했다. 이 경우 쿠팡의 기업가치는 510억 달러(약 57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2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쿠팡은 이번

기업공개(IPO)에서 주식 1억2000만주를 주당 27~30달러에 매각하는 계획을 담은 서류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했다. 공모 희망가 상단을 기준으로 한 자금 조달액 규모는 최대 36억 달러

(약 4조 원)다.

쿠팡이 36억 달러를 조달할 경우 미국 증시 사상 4번째로 규모가 큰 아시아 기업 IPO가 된다. 1위는 2014년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250억 달러)다.

이번 상장으로 가장 큰 투자 이익을 내는 곳은 손정의 회장의 소프트뱅크다. 소

프트뱅크는 2015년과 2018년 30억 달러를 투자했다. 쿠팡 창업자 김병석 이사회 의장은 일반 주주의 29배에 해당하는 차등의결권이 부여된 클래스B 보통주를 받는다. 상장 후 김 의장이 보유한 지분의 의결권은 76.7%로,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